

이남호 해명 회견 불참...천호성 “즉각 사퇴” 압박

이원택 또 고발 명예훼손 혐의 추가

6.3 지선 **D-12**

‘금품 의혹’ 기자회견 대리인 출석 “개인 일탈” 기존 입장 반복
천호성 “꼬리 자르기·물타기” 비판 경찰 포렌식 완료...수사 확대

전북교육감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도내 교육감 후보들이 언론인 금품 제공 의혹과 선거사무소 압수수색 사태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는 당초 예고했던 해명 기자회견에 불참했고, 천호성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남호 후보 캠프는 이날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정작 당사자인 이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리 출석한 이경한 공동선대위원장은 “선거 유세 첫날 현장 활동 중이라 후보가 직접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최근 발생한 언론인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전대변인 개인의 일탈일 뿐 선거와 무관하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한 인터넷 언론사 대

표와 천호성 후보 측이 유착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관련 녹취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해당 녹취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어진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의 기자회견에서 천 후보는 “이 후보는 교육감 선거를 금품선거로 전락시켜 전북교육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천 후보는 “선거기간 중 경찰이 후보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진행한 것은 단순 일탈이 아닌 조직적 범죄 의혹을 뜻한다”며 “대변인은 후보의 입인데 이를 무관하다고 하는 것은 전북도민을 기만하는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 측이 제기한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천 후보는 “새빨간 거짓말이자 코미디에 불과한 물타기”라고 일축하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법 위반 시 윈스트라이크 아웃 △어떠한 사전 약속 금지 △거짓말 적발 시 즉각 조치 등 3대 무관용 원칙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남호 후보 핵심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마치고 수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후보 간의 폭로전까지 맞물리면서 전북교육감 선거판의 막판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최성민 기자



‘김관영 내란 방조 의혹’ 단정 발언 명예훼손 혐의 추가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SNS 반복 공표” 문제 ‘식비 대납’ 이어 재차 고발전 확산



이원택 후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이원택 후보에 대한 고발장이 추가 접수됐다.

지난 20일 전북 경찰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형법상 명예훼손, 출판물등의의한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이 추가 접수됐다.

이원택 후보가 당시 민주당 당내 경쟁 상대였던 김관영 후보에 대해 내란죄를 방조했다는 취지의 단정적 주장을 수 차례 기자회견과 SNS 등에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고발인은 “이원택 후보는 김관영 후보의 해명 후에도 반복적으로 김 후보가 계엄 체제에 순응했다고 공표했다”며 고발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고발인은 이원택 후보에 대한 식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한데 이어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이 후보를 재차 고발한 바 있다.

/장정철 기자

도교육감 선거전 본격 접화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전북교육감 후보자 천호성 후보(사진 상)와 이남호 후보(사진 하)가 각각 거리 유세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최성민 기자>

김관영 후보 ‘테러’ 암시 SNS 글 파장...경찰 수사

“현금살포범 잡으러 간다” 게시 선대위 “혼탁선거 조장” 수사 의뢰
이원택측 “협박·김 후보 수사 촉구”

김관영 전북도지사 무소속 후보를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특정 페이스북에

김 후보를 잡으러 간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글을 올린 강모 씨는 페이스북에 “저는 내일부터 현금 살포범 잡으러 갑니다”라면서 “충고는 친 민주당, 전북 사랑하는 분, 친 이원택, 친구들만 오늘까지만 해 주시고, 내일부터는 전북, 민주당을 위해 저를 버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글에 동조하면서 댓글을 단 최모

씨는 “현금 살포범 잡으러 갈 때 반항하고 토끼니까 수갑과 권총 가져가세요”라며 응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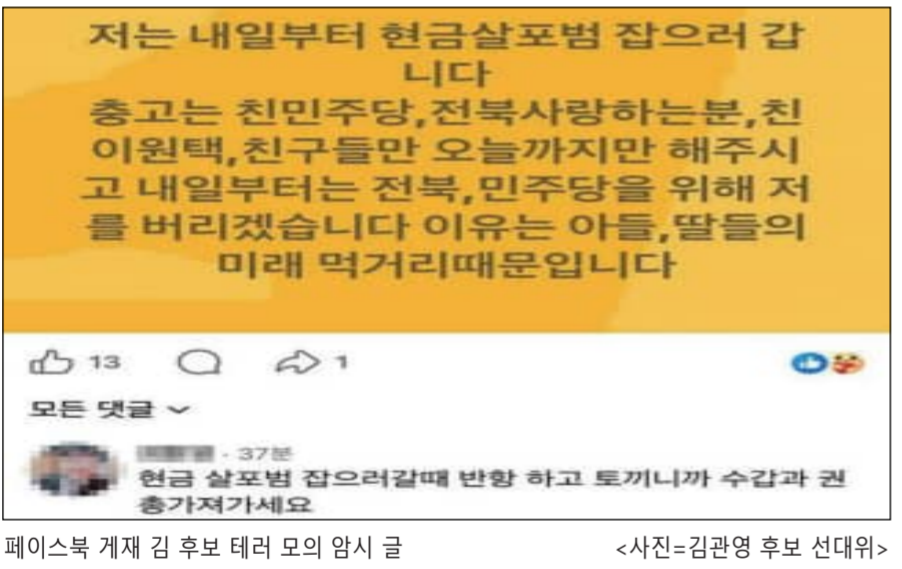
앞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6일에는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실체를 알 수 없는 글이 SNS 단체방에 올라온 바 있다.

김 후보측 선대위 관계자는 “본선거 출정식을 앞두고 혼탁한 선거판을 정리하기 위해 네거티브 종식을 선언했는데 곧바로 이런 제보가 들어와 유감

이라며 “우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선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무소속 김관영 후보에 대한 협박성 글에 대한 수사 및 김관영 후보의 현금살포 사실과 그 사실을 덮기 위한 은폐 시도 의혹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페이스북 게재 김 후보 테러 모의 암시 글 <사진=김관영 후보 선대위>

함께 실천해요! 환경보호!

1회용품 사용자제

플라스틱용기,
포크, 젓가락등
사용하지 않기

에너지 절약 실천

전기절약 장치사용,
에어컨 적정 온도
유지하기

쓰레기 줄이기

음식 포장지등
불필요한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 하기

녹색생활 습관개선

걸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북도, 부안 해역 해상풍력 1GW 사업자 공모

확산단지2 1GW급 7-8월 중 확정 서남권 24GW 조성계획 최종단계 주민수용성·경제기여도 중점평가 26일 사업설명회 선정 절차 본격화

전북도가 21일 서남권 해상풍력 2.4GW 발전단지 조성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과업인 확산단지2 1GW급 사업시행자 선정 공개 모임을 공고했다. 모집 대상 지역은 지난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부안 인근 해역 약 173.5㎢로, 1GW급 해상풍력 발전사업 확산단지2에 해당하는 사업 구역이다. 해당 사업은 전북자치도가 역점 추진 중인 '서남권 해상풍력 2.4GW 조성계획'을 완성하는 최종 단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산업 기반 구축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모는 대표사·참여자 모두 국내외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 참여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응모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 시에는 △안전적인 발전단지 조성 능력 △국가·지역경제 기여도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산업인프라 구축 전략 △기타 사업 제안의 우수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도는 오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번 공모와 관련해 관계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전체적인 사업 기간 및 운영 기간, 참여 자격 및 조건, 공모 선정 절차와 일정, 도의 추진 현황 등을 안내하고, 참여 기관·기업의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자 선정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올해 공모를 진행한 부안 800MW 공공단지는 2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1단계



<사진=전북도>

(사진 적격 심사) 평가를 마치고 현재 2단계(사업 제안) 평가를 앞두고 있다. 도는 오는 6월 중 2단계 평가를 완료하고, 7-8월 중 최종 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공모는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마지막 사업자를 선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역량 있는 사업자가 선정돼 부안과 고창 해역을 아우르는 전북 전체의 해상풍력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이주봉 전북선방도 위원장, 중앙선관위원장 표창

공명선거 공로 인정받아 수상 청년 선거교육 활성화 공로



<사진=전북선관위>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주봉 전북특별자치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전북선방도위') 이주봉 위원장(국립군산대학교 미디어문화학과 교수)이 올바른 선거토론 문화 정착과 실천적 선거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제15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선거 및 주권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선진 선거문화 정착 및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유권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독일 오스나브뤼크 대학교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호남언론학회 회장을 역임한 미디어 전문가인 이주봉 위원장은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토론회의 안정적 운영과 중립성 확보를 주도했다. 특히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 4개 주요 대학 중심의 '투

표참여 서포터즈'를 조직해 청년층의 참정권 인식을 높였으며 대학 내 '정치관계법' 교과목 신설을 주도하는 등 미래 세대 유권자를 위한 실천적 선거교육 도입에 앞장섰다. 이주봉 위원장은 "이번 표창은 공정한 선거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준 위원회 위원 및 직원들과 선거교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대학 관계자와 청년 유권자들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성숙한 민주주의와 토론 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자치도, 외국인근로자 이름표기 안전모 지원

사업장 인권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 모국어·한글 병기 안전모 지원 참여기업 노무·안전교육 연계 제공

전북도는 오는 6월 12일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이름이 표기된 안전모를 지원하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캠페인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외국인근로자를 이름 대신 "나", "야" 등 비인격적인 표현으로 부르는 관행을 개선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인격체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름을 부

르는 것부터 인권 존중과 상호 존중의 사업장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도는 외국인근로자의 이름을 모국어와 한글로 함께 표기한 안전모를 지원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동료의식과 인권존중 문화를 알리고, 명확한 호칭 사용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캠페인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도내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과 팩스,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KC 인증 안전모 총 150개가 지원되며, 기업당 최대 30개까지 제공된다. 안전모에는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이름이 모국어와 한글로 함께 표기돼 근로자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현장 내 원활한 소통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캠페인 참여 기업에는 노무·행정 상담과 인권교육, 산업안전 VR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까지 연계해 지원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장정철 기자

백경태 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은 외국인근로자를 인격체로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사업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이름을 불러주세요! 캠페인과 함께 농축산 분야 고용주 인식개선 사업 등 외국인근로자 인식개선 사업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정철 기자

이원택 "전북성장공사 설립" 1호 공약

기업·산업·인재 있는 성장 플랫폼 매출 1천억 스타기업 100개 육성



이원택 후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21일 미래산업 투자와 재생에너지 산업화, 성장펀드 조성, 산업생태계 구축 등 전북 성장의 전 과정을 책임질 '전북성장공사' 설립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성장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 체감성장의 엔진인 전북성장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들은 '기업이 들어왔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인가', '성장은 하는데 왜 청년은 계속 떠나는가'라고 묻고 있다"며 "이제는 전북 안에서 돈이 돌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향토기업이 크고, 청년이 돌아오는 체감성장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체감성장을 실현할 핵심 수단으로 전북성장공사를 제시하며 "단순한 투자유치 기관이 아니라 기업 육성과 미래산업 전략, 산업과 금융, 기업과 인재를 촘촘히 연결하는 전북형 성장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전북성장공사가 추진할 사업으로 △전북기업 성장 플랫폼 구축 △기업 유치와 미래산업 집중 투자 △산업·투자·기업·인재를 연결하는 성장 컨트롤타워 구축 △도민 참여 성장펀드

조성 등을 전북성장공사 4대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선 전북기업 성장과 관련, "매출 1000억 원 이상 '전북형 스타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향토기업이 전국 시장을 선도하는 로컬브랜드와 전북형 브랜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만들어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100개, 식품바이오 벤처기업 50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미래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AI와 피지컬AI, 농생명 바이오, 첨단소재, 미래차, 방위산업, 그린수소 같은 미래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은 AI반도체와 첨단패키징, 테스트베드, RE100 산업단지가 결합한 대한민국 서남권 미래산업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고, 현대차그룹 9조 원 투자는 조기 가동과 후속 산업 연계로 전북 산업 대전환의 마중물로 만들겠다고 했다. 도민이 참여하는 20조 원 규모의 '전북형 성장펀드' 조성 계획도 제시했다. 5조 원 규모의 전북미래성장펀드와 15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성장의 혜택이 외부 자본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제로 남는 전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서울=김영목기자

김관영, 풍남문광장서 공식 선거전 본격 돌입

출정식 개최 도민 1천여명 결집 "전북의 선택 결국 도민이 결정" 현장화 등 올림픽 유치 지지 발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21일 오전 10시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을 열었다. "멈추지 않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출정식에는 여성·청년·노인·장애인·장애인 등 각계각층 도민 1천여 명이 참석해 풍남문광장을 가득 메웠다. 흐린 날씨 속에서도 도민들은 우비와 하늘색 바람개비를 손에 들고 "김관영!"을 연호했으며, 현장은 전북의 변화를 멈추지 않겠다는 결연한 분위기와 뜨거

운 응원으로 채워졌다. 김 후보는 출정 연설에서 "지금 전북의 하늘엔 회색 구름이 드리워져 있지만, 우리는 저 뒤에 파란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흔들림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북의 힘이고, 도민의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김관영 한 사람의 선거가 아니다"며 "전북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도민들의 선거이고, 전북의 선택은 결국 도민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는 "갈등과 분열의 정치에 기대지 않겠다"며 "도민과 함께 끝까지 전북의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정식에서는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를 응원하는 특별 지지 발언

도 이어졌다. 현정화 전 탁구 국가대표 감독을 비롯해 해태 타이거즈 원년 멤버 김봉연 전 선수, 김성환 전 기아 타이거즈 감독, 한국인 최초 세계복싱 명예의 전당 입성자인 장정구 전 세계챔피언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김 후보의 도전과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에 힘을 보탰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0시 청년들과 함께 온라인 출정식으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시작했다. 청년 지지자 40여 명이 자발적으로 기획한 온라인 출정식 '위대한 동행'은 ZOOM으로 진행됐으며, 김 후보는 청년들과 인사를 나누며 "여러분이 떠나지 않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도



<사진=김관영 후보 측>

민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전북의 진짜 주인은 바로 도민이라는 것을 오늘 전북 도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셨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건강한 생활 습관 으로 건강관리 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금주, 금연



하루 7~8 시간 숙면



건강한 식습관



매일 충분한 물 마시기

서부신시가지 공한지주차장 무료 개방

시, 투지주 소통 공략 3년 무상 제공 협약 성사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공한지(8386㎡) 활용한 주차장 312면을 조성해 지난달 29일부터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그동안 서부신시가지는 아파트 또는 상가 밀집지역으로 유동 인구가 많아 주차에 의한 주민 및 관광객들의 시시비비가 발생되던 곳이다. 주차대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지역주민들은 공영주차장 확충 민원을 끊임없이 시에 제기했다. 이에 전주시는 완산구 효자동2가 일원 민간 소유 공한지(8386㎡)를 활용한 주차장 312면을 조성했다. 앞서 시는 공한지 주차장 조성을 위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공한지(8386㎡) 활용한 주차장 312면을 조성해 지난달 29일부터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사진=전주시>

해 토지구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 상 제공 협약을 이끌어냈다. 협약 기간 이후 상호 협의를 거쳐 기

간 연장도 가능토록 한 협약 내용도 명시됐다. 이어 시는 주차장 공사에 지난 1월부터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한지주차장 조성공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달 주차면 312면과 가로등 10주, 투광등 17개, 안전 관리용 CCTV 3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주차장 조성을 완료했다. 주차장이 조성된 이후 총 312면의 주차면 중 절반인 160여면의 주차면이 평일 및 연중무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관련해 시는 현재 전주시 전역에 총 82개소(1649면) 공한지주차장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시는 오는 9월 전북특별자치도청 북측에 89면 규모 노상주차장을 조성해 개방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고유가 대응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확산'

K-패스 전년 대비 7837명 증가

전주시가 지속되는 고유가 대응에 따른 시민 교통비 부담과 출근·통학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이어간다. 이에 시는 K-패스 환급 혜택 확대와 혼잡노선 예비차 투입 등 시민들의 버스 이용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전주지역

K-패스 가입자가 꾸준히 늘면서 대중교통 이용 기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K-패스 가입자는 지난해 1만 3638명에서 현재 2만1475명으로 7837명 증가했다. K-패스는 만 19세 이상 전주 시민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오는 9월 이용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

혜택이 적용된다. 또 시는 시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한 혼잡 완화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는 출근 수요와 학생 통학 수요가 많은 시내버스 165번과 101번 노선에 예비차 3대를 투입해 아침 시간대 배차간격을 줄였다. 지난 4월 시내버스 이용객은 전년 대비 10만1259명 증가했으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이후 일부 노선에서는 출근·통학 시간대 혼잡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시는 고유가 상황과 대중교통 이용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 노선별 이용객 변화와 혼잡 상황 및 시민 불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개시

윤동욱 부시장 지급 상황 점검

중동발 위기로 인한 고물가·고유가 대응 어려움을 겪는 시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개시됐다. 이에 전주시는 원활한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윤동욱 부시장은 2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본격화된 동 주민센터 접수 현황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 점검은 지원금 신청 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령층이나 거동이 불편

한 취약계층의 접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추진됐다. 윤 부시장은 현장에서 접수 대기 중인 주민들과 만나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앞서 시는 원활한 피해지원금 신청과

민원 대응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사업 총괄 △현장 지원 △홍보·전산 지원의 3개반의 전담 대응반(TF)을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오프라인 선불카드 지급을 위해 35개 동 주민센터에 기간제 인력과 전산장비 구축 등을 보강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노인 건강과 여가를 잇다!

전주시·서원노인복지관 다운 스크린파크골프장 개소

전주시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서원노인복지관에 문을 열었다.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 이용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계절 및 날씨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우편기 시장은 21일 서원노인복지관(관장 하태수), 지역 주민, 복지관 이용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운 스크린파크골프장'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소식 스크린파크골프장은 전주시의 지원을 통해 조성된 시설이다. 참석자들은 개소식에 이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스크린파크골프를 경



합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시는 노인들의 신체활동 증진은 정서적 활력 향상과 사회적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인권문화 확산 '함께존중 캠페인' 전개

전주시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위한 인권 존중문화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시는 21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함께존중 캠페인'을 전개했다. 앞서 시는 인권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4월과 5월에는 주요 축제장과 행사 공간을 찾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권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앞서 시는 시민 대상 인권문화 확산 활동과 덕진구 각각 '찾아가는 함께존중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내부 공직자 위한 상호 존중문화 확산 활동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함께존중 캠페인'은 직장 내 인권 감수성 향상과 함께 존중과 배려 중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다. 직원들이 일상 속 언행과 조직문화를 스스로 돌아보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아울러 시는 '일상의 점점' 책자를 활용해 △외모 평가 △반말과 호칭 △위계적 문화 △술자리 문화 △의사소통 방식 등 직장 내에서 무심코 반복될 수 있는 언

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캠페인을 통해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을 공유하는 참여형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직원들이 듣고 싶은 말로는 △잘하고 있어요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등 격려와 존중의 표현이 많았다. 듣기 싫은 말로는 △비하하거나·무시하는 표현 △사생활을 침해하는 질문 △연가 사용에 대한 눈치 주기 등이 제시됐다. 시는 매월 '일상의 인권도서'를 선정해 인권이해를 돕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권의 가치를 접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청 10억대 대출사기 조직 검거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 악용 브로커 12명·명의자 107명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 광역범죄수사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총 120회에 걸쳐 생활안정자금 10억5000만원을 편취한 대출 브로커 조직원 12명을 검거했다. 이 중 가담 정도가 중한 총책 등 3명을 구속했다. 총책 A는 2025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 사이 의정부에 사무실을 두고, 자신이 직접 섭외하거나 알선책을 통해 섭외한 부산 브로커, 서울 브로커 등 3개 브로커 조직을 통해 대출명의를 모집했다. 의료비 영수증을 위조하여 대출명의를 명의로 근로복지공단에 생활안정자금(의료비) 대출을 신청한 다음, 실제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의 15%-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의자들은 △총책은 위조 영수증 제공 및 수익금 분배 △알선책은 대출명의를 모집 △대출신청 등 체계적인 역할 분담에 범행을 이어왔다. 경찰은 근로복지공단 전북지역지사 3곳(전주, 익산, 군산)에 위조된 의료비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

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 이와 유사한 수법의 대출신청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대출 과정에서 제출된 의료비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의료비 영수증의 금액을 수정하거나, 이름과 날짜만 교묘하게 수정해 의료비 영수증 자체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1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대출에 관여한 대출브로커 12명을 검거하고, 그 중 총책 및 대출브로커 3명을 구속·송치하는 한편, 불법대출에 가담한 대출명의를 107명에 대하여도 송치할 예정이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차원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간소한 절차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저이용 융자제도인 만큼,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근로복지공단에 의료비를 포함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제출된 서류에 대한 확인 절차 강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예수병원 간암 치료 독보적 권위 입증

'방사선색전술' 100례 달성

전주예수병원이 '방사선색전술' 100례를 달성하며 간암 환자 치료에 용이함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병원 신종식 병원장은 21일 간암 치료법인 '방사선색전술(TARE, Transarterial Radioembolization)' 100례를 호남지역 최초 달성했다고 밝혔다. 방사선색전술은 간동맥을 통해 방사선 동위원소(이트륨-90)가 탑재된 미세 구슬을 주입해 종양 내부에서 직접 방사선을 쏘아 암세포를 파괴하는 첨단 기술이다. 특히 방사선색전술 치료는 간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종양을 집중 타격할 수 있어 부작용이 적어 '가장 안전한 기술'이자 '혁신적인 치료법'으로도 꼽힌다. 예수병원 방사선색전술 100례 달성 주인공은 예수병원 영상의학과 김윤환 과장이다. 김 과장은 2010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재직 시절, 대한민국 최초로 방사선색전술 인터벤션 기술을 성공적



으로 도입하며 국내 간암 치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바도 있다. 김 과장의 방사선색전술 100례 달성은 2023년 8월 12월 2건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며 안정적 진료 시스템을 바탕으로 2024년부터는 매주 정기적으로 방사선색전술을 실시해 단기간 '호남 최초 100례 달성' 금자탑을 쌓아 올렸다. 아울러 그는 대한민국 방사선색전술 분야 독보적인 권위자이며 개척자로도 평가를 받고 있다. 예수병원은 첨단 인터벤션 기술 역량을 더욱 강화해 지역 내 중증 질환 치료 거점 병원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병원 최첨단 'SPECT-CT' 도입

핵의학 영상 고도화로 암·심혈관·뇌질환 조기진단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최첨단 SPECT-CT를 도입하며 중증 질환에 대한 정밀진단 및 맞춤형 치료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전북대병원은 21일 핵의학과 내에 고해상도 화질과 최첨단 영상 기술을 탑재한 신규 SPECT-CT(단일광자단층촬영/컴퓨터단층촬영) 장비 도입에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입된 최첨단 SPECT-CT는 지멘스 헬시니어스(Siemens Healthineers)사의 최신 모델이다. 방사선동위원소를 이용해 신체 내 생리적·기능적 변화를 측정하는 SPECT 장비와 해부학적 구조를 파악하는 CT가 결합된 최첨단 하이브리드 진단 시스템이다. 이 장비는 기존 SPECT에 비해 해상도가 대폭 향상됐으며, 기능적 이

상과 해부학적 위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암의 전이 여부 확인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뇌질환 등 근골격계 질환의 정밀 진단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특히 이번 장비 도입을 통해 암 진단과 병기 결정, 치료 효과 분석 등에 있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이는 지역 내 중증 질환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SPECT-CT 도입을 비롯한 지속적인 최첨단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중증·응급질환 최중요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 내에서도 수도권 수준의 정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TP, 전북 및 제주 허브 혁신기술 교류

재활용 배터리 성능 평가 역량 강화 중점 실무자 협의회 개최

전북TP는 21일 전북 및 제주 허브 간 혁신기술 교류회를 진행했다.

교류회는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컨소시엄 주체들과 함께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 배터리 재자원화 센터 등 주요현장 방문을 통해 진행했다.

특히 전북TP는 이번 현장 기술 교류를 통해 도내 기업들의 재활용 배터리 성능평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이날 과기부 지역기술혁신허브 사업을 수행 중인 전북과 제주간의 허브 혁신 기술을 공유하며 각 지역 간 기술혁신 허브사업의 파급효과와 창출을 위한 지역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컨소시엄은 2차년도 지역기술혁신허브 전략기술

총괄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현장 기술 교류를 통해 1차년도에 발굴된 핵심 기술의 조기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R&BD 실행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과기부 지역기술혁신허브 사업을 수행 중인 전북과 제주간의 허브 혁신 기술을 공유하고, 각 지역 간 기술혁신 허브사업의 파급효과와 창출을 위한 지역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컨소시엄은 2차년도 지역기술혁신허브 전략기술 총괄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자 협의회는 허브사업의 2차년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R&D(LFP 배터리 재활용 및 실리콘 음극재)분야와 R&BD분야 참여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해 기술 검증과 R&BD 전략 구체화를 위해 전 분야의 실무자들이 총괄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분야별 주요 논의는 △(LFP 리사이클링) 연구 중간점검 및 샘플 공유 체계 구



<사진=전북테크노파크>

축을 통한 정보교환 △(실리콘 음극재) 1차년도 데이터 기반 전극 설계 조건 기술교류 및 사업 운영 효율성 강화 △(R&BD) 1차년도 발굴 기술 기반 맞춤형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등이다.

전북TP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 간 기술 검증 협력을 공고히 하고, 1차년도에 발굴된 기업 및 기술이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로 이

/정소민 기자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익산 소재 (주)새롬 방문

경영 애로 점검 및 지원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은 지난 21일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식품 포장재 전문기업인 (주)새롬 생산공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기업의 경영 애로를 점검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주)새롬은 식품 포장지를 제조·공급하는 중소기업으로, 최근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과 환율 변동, 가격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에 노출된 상황이다.

이날 현장에서 명미순 (주)새롬 대표이

사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적지 않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용석 제1차관은 먼저 "심각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망 유지에 힘써주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수출바우처 1,000억원을 포함한 총 1.69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책자금 확대를 위해 5,500억원의 추경을 편성에 필요한 기업에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했다. 노용석 제1차관은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세심히 살피 정책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경영 정상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소민 기자

바이오진흥원, 케어푸드 지원사업 추진

매출증대고용창출 등 지역산업 활성화 기대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2026년 지역특화자원 연계 케어푸드 제품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의 세부 지원과제 6개를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특화자원 연계 케어푸드 제품개발 및 실증사업은 원광대학교 글로벌 지역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자치도

가 추진하는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 육성에 발맞춰 도내 식품기업과 지자체연구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케어푸드 제품개발 및 기능성·효능 평가를 통해 과학적 우수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바이오진흥원을 비롯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소 등 6개의 지자체연구소와 도내 식품기업이 협력해 고령친화식품, 특수영양식품 등 케어푸드 제품개발을 추진했다.

도내 식품기업은 제품 기획, 제조, 상

품화 등 제품개발 전반을 담당하고, 지자체연구소는 원료 및 제품의 기능성·효능평가 등을 지원해 제품의 완성도와 시장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사업은 도내 식품기업과 지자체연구소의 협력을 통해 지역특화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케어푸드 제품개발과 효능평가 지원을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상품화와 매출증대, 고용 창출 등 지역산업 활성화는 물론, 케어푸드 산업육성 계획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바이오진흥원은 본 사업을 통해 도내 식품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기능성 검토와 효능평가 데이터를 확보하고, 차별화된 케어푸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제품의 상품화와 시장 진입을 촉진해 참여기업의 매출 증대 및 고용창출로 이어져 지역특화자원 고부가가치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국산 감귤 '피부장벽 개선' 기능성 화장품 인증

농진청-산업체, 공동연구 11월 본격 제품 생산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우리 감귤 '윈터프린스'와 '은주밀감'으로 '피부장벽개선'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 감귤의 새로운 산업적 소재 가능성을 확인했다.

피부장벽은 외부 유해 물질 침투를 차단하고 체내 수분 손실을 막아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피부장벽을 구성하는 단백질과 플라센 발현이 저하되면, 피부가 건조하거나 가려움증, 염증 등이 생길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화장품 업계의 천연 원료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량이 풍부하고 수급이 안정적인 국산 감귤(Citrus)에 주목했다.

감귤은 항산화·항염 활성이 뛰어난

플라보노이드와 피부 노화 방지·장벽 기능 강화에 도움을 주는 폴리페놀이 풍부하다.

농촌진흥청이 개발, 최근 재배면적이 늘고 있는 우리 품종 '윈터프린스'와 전체 감귤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은주밀감'은 '피부장벽개선' 평가에서 우수한 효능이 있었다.

연구진이 '윈터프린스'·'은주밀감' 혼합 추출물을 인공 피부에 실험한 결과, 대조군보다 피부장벽 형성 핵심 단백질인 필라그린과 콜라겐 유전자 발현량이 약 2배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아울러 피부장벽 기능 저하 증상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4주간 실험한 결과, 사용 전과 비교해 경피수분손실량은 15.4% 줄었고, 피부 수분 함유도는 약 61.7% 증가했으며, 가려움증도 28.5% 개선됐다.

이에 따라 '윈터프린스'·'은주밀감'



<사진=농촌진흥청>

혼합 추출물을 활용한 감귤 화장품은 올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피부장벽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정식 인증받았다.

이번 연구는 농촌진흥청, 전남바이오진흥원, 산업체(㈜삼스빌) 공동 연구사

/정소민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 '대규모 쇼핑 페스티벌'

말일까지 이벤트 쏟아져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10일간 롯데백화점 전주점 '대규모 쇼핑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대규모 쇼핑 페스티벌'은 롯데백화점 전주점 22주년 기념 쇼핑 페스티벌'으로 고객 위한 다양한 즐거움 그리고 여러 쇼핑 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 핵심으로는 지난 22년간 전주점을 찾아준 전북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것으로 다채로운 사은 혜택과 이벤트를 집중시킨 것이 특징이다.

특가 상품전이 전개되며 상품군별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10% 사은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개점 22주년 기념한 스페셜 이벤트도 다채롭게 쏟아진다.

행사 기간 당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별 미용 티슈 및 식품 이용권, 롯데 피자 세트 등 다양한 선물이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또 백화점 앱을 활용한 스마트 스탬프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1만원 이상 영수증 5회 인증 시 LPOINT 1만

점을 적립해 주는 등 풍성한 앱 전용 혜택도 만나볼 수 있다.

오픈 첫 주 테마 행사로 유명 브랜드의 세컨핸드 스토어인 '비바무'역 해외 직수입 빈티지 팝업'과 키보드 마니아들을 위한 커스텀 아이템을 제안하는 '키터투어 in 전주'가 진행돼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오늘 그랜드 오픈에는 나이크 키즈, 노스페이스 키즈, 마리떼키즈, 스토케 등 선호도가 높은 5개 브랜드가 신규 입점해 뉴발란스 키즈, 폴로 키즈, 부가부 등 총 16개 아동·유아 브랜드가 리뉴얼 오픈해 한층 차별화된 아동 전문관으로 거듭난다.

마지막으로 초보 운전자와 아이를 동반한 고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여성 배려 주차장'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본관 지하 2층 중심이었던 주차 공간을 본관 지하 3층 및 별관을 포함해 총 117면으로 크게 늘려 주차 편의성을 강화했다.

한편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이번 22주년 쇼핑 페스티벌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쇼핑 환경과 고품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사진=군산상공회의소>

군산상의,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참관

군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용)는 21일 회원기업 임직원들과 함께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제환경산업기술 & 그린에너지전(ENVEX 2026)'을 참관했다.

이번 참관은 수처리, 대기환경, 폐기물 처리,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산업과 그린에너지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지역 기업들이 환경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전시장을 둘러보며

친환경 설비, 에너지 절감 솔루션, 폐기물 처리 기술, 탄소중립 대응 제품 등을 확인했다. 또한 관련 기업 및 기관의 전시 부스를 방문해 사업장 환경관리와 친환경 설비 도입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다.

군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원기업들이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북은행 비즈니스클럽, 정기총회 및 세미나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21일 전주 그랜드힐스호텔에서 도내 중소기업CEO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은행 비즈니스클럽 '제 22년차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내 중소기업체 CEO들로 구성된 전북은행 비즈니스 클럽은 지난 2003년에 창립해 올해로 22회째 총회를 맞이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비즈니스클럽 회원과 전북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라이

언 자산운용 이상훈 부사장을 초청해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 전략'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박춘원 은행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 속에서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전북은행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비즈니스클럽 회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동반과 상생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기반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건강관리協, 청소년박람회서 건강캠페인 전개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는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에 참가해 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활기찬 건강캠페인을 전개했다.

청소년박람회에서 건협 전북지부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스트레스 측정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건협 전북지부는 캠페인에서 부스를 찾은 청소년들에게 뇌파·맥파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해 스트레스 지수와 자율신경 건강 상태를 확인해 줬다.

청소년박람회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익산중앙체육공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건협 전북지부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상담과 함께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했다.

건협 전북지부 임진영 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이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스트레스 상태를 점검하고, 올바른 건강 관리 습관을 기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 4개 대학, 고교교육 기여 평가 'S등급' 전무

전북대·원광대 등 모두 A등급... 10% 중액 예산 확보 무산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전북지역에서는 추가 사업비가 배정되는 최우수 'S등급' 대학이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도내에서는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원광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등 4개교가 평가 대상에 올랐으나 모두 중간 그룹인 'A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선정된 전국 91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입 평가 역량과 고

교교육 연계성 등을 점검했다.

사업총괄 위원회는 평가 점수에 따라 상위 20%를 S등급(18교), 중간 60%를 A등급(55교), 하위 20%를 B등급(18교)으로 분류했다.

S등급은 사업비의 10%를 추가로 지원받고, B등급은 10%가 감액된다. 도내 4개 대학은 A등급에 머물러 기존 배정된 사업비의 삭감은 피했으나, 타 지역

S등급 대학들이 확보한 10% 인센티브 예산 경쟁에서는 밀려났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수험생의 대입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며 올해 총 575억 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내달 초 대학별 확정 사업비를 통보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전북 유망 선수들, 전국체전 출전

총 1290명, 38개 종목 도전

전북 체육 미래를 이끌어 갈 유망 선수들이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부안광역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12세 이하부와 15세 이하부로 나뉘어 치러지며 도내에서는 선수와 임원 등 총 1290명이 38개 종목에 출전해 자웅을 겨룬다.

도 체육회는 대진 추첨이후 전력분석 결과 이번 대회에서 전북 선수단은 총 70개 가량의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록 종목은 전년도 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다수의 메달 획득이 가능한 레슬링과 유도, 태권도 등의 체급 종목에서 선전할 경우 더 많은 메달 획득도 기대하고 있다.

초등부 농구 종목과 중등부 배드민턴 종목에서는 우승에 도전한다.

단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전국체육대회와 달리 체육 꿈나무들의 성적 지상주의에 따른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해 시도별 종합 순위는 발표하지 않는다.

도 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한국 체육 미래인 꿈나무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소년체전에 도민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익산시 '전국 승마대회' 오는 25일 개막

25일·29~31일 공공승마장 일원 개최

전국 승마인들이 익산에 모여 역동적인 레이스를 펼친다.

익산시는 오는 25일과 29~31일 '제1회 익산 미려사지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가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승마협회가 주최·주관하며, 익산시공공승마장과 금강변 승마길 일원에서 개최된다.

대회에는 엘리트 선수와 동호인 선수 등 전국 승마인 200여 명이 참가해 종목

별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대회 첫날인 25일에는 지구력 경기가 펼쳐진다.

지구력 경기는 말과 기수가 장시간 호흡을 맞추며 코스를 완주하는 종목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익산 금강변 승마길에서 진행돼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29일부터 31일까지는 익산시공공승마장에서 장애물 경기와 마장마술 경기가 열린다.

장애물 경기는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를, 마장마술은 말과 기수의 섬세하고 우아한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어 승마

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이번 대회가 승마 문화 저변 확대와 지역의 우수한 승마 인프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선수단과 방문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에서 오랜만에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승마대회인 만큼,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뜻깊은 무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승마 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회와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익산시>

전교조 전북지부 "학부모 교육 방임은 방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수사기관과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며 교육적 방임 공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주시 소재 한 초등학교의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학교 6학년 학생은 3월 새 학기 시작 이후 두 달 넘게 등교하지 않고

있다. 학교 측은 보호자와의 협의에 실패해 지난 4월 수사기관에 개입을 요청했으나, 경찰과 지자체는 "교육적 방임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다"며 사실상 실태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단체는 당국의 이러한 무대응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체계와 비교하며 비판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 이후 접수된 교원 아동학대 신고 1,439건 중 71%인 1,023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중 실제 검찰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단 17건(1.7%)에 불과했으나, 당국의 수사 개시 전 종결 처리는 166건에 그쳤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내 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지자체 조사 시 교육감 의견서 적극 반영 매뉴얼 개선 △담당자 동의 없는 학급 전수조사 및 과도한 분리 조치 중단 등을 제안했다.

/최성민 기자



<사진=부안군>

'천년 비색 부안청자, 길 위에서 만난다' 특별전

부안군은 고려청자의 아름다움과 도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4주간 새만금고속도로 김제휴게소 2층 전망대에서 2026년도 박물관 in 휴게소 전시 '천년 비색 부안청자, 길 위에서 만난다' 특별전시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하며 전북특별자치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와 군을 비롯한 도내 7개 박물관이 참여한 다. 전시 주제는 '천년 비색 부안청자, 길

위에서 만난다'로 부안청자박물관 소장 고려청자 재현품이 진열장에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일상적 공간을 문화와 예술을 체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탐바꿈시키는 시도로 이동 중에도 역사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향유 모델을 제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부안 고려청자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완주 삼례중 이가영,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

도 청소년박람회 예·체능 부문

완주군 삼례중학교 이가영 청소년이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에서 열린 '제13회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식에서 예·체능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이번 시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청소년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가영 학생은 그동안 보여준 꾸준한 노력과 우수한 경기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육상에 입문한 이가영 학생은 멀리뛰기와 높이뛰기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2022년과 2023년에는 연속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선발됐다.

중학교 진학 이후에는 세단뛰기 종목에 새롭게 도전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그 결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전국소년체육대회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연속 선발되는 쾌거를 이뤘다.



<사진=완주군>

특히 2025년에는 제54회 전국중·고등학교 육상경기대회 여중부 세단뛰기 1위, 제6회 전국 초·중·고등학교 6학년 육상경기대회 여중2학년부 세단뛰기 1위 및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는 등 전국 단위 대회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며 대한민국 육상계의 주목받는 유망주로 떠올랐다.

서유진 아동전화과정장은 "앞으로 대한민국 육상을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완주=김명근기자

'전북 어울림 창작활동' 참여 모임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2026 전북 어울림 창작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장애·비장애 예술인 모임 10개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 어울림 창작활동 지원사업'은 도내 장애 예술인을 주축으로 한 배리어프리 기반의 창작 지원 프로그램이다. 장애·비장애 예술인이 단일 또는 복합 장르를 결합해 공동의 예술 창작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집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모집 분야는 시각 및 공연예술이다. 지원하고자 하는 모임은 반드시 비장애인 1명과, 2명 이상의 장애인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의 활동 경

력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이 구성원 중 포함돼야 한다.

선정된 10개 모임에는 각 4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재단은 전문가와의 기술 교류 워크숍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해부터 재단은 전년도 우수 사례로 선정된 모임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며 지속적인 창작 여건을 보강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 최초 수혜 모임'과 '구성원 절반 이상이 인구 소멸지역 거주자'에게 부여되던 가산점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청서 서식 및 자세한 공모 내용은 재단 공식 누리집(jbc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지난 18일부터 6월 1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jbct2024@hanmail.net)을 통해 진행된다.

/장정철 기자




언제 어디서나 즉시 사용가능한 수동식 심폐소생기

안전에 일상을 더하다



“지금 익산은 장미의 계절”... 도심 공원 장미 활짝

익산시가 초여름을 맞아 시민들에게 향긋하고 화사한 휴식공간을 선물하고 있다. 익산시는 장미정원이 본격적인 개화 시기를 맞아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장미정원은 배산체육공원, 중앙체육공원, 유전생태습지에 조성된 공간이다. 매년 5월 이면 형형색색 장미가 피어나 가을까지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특히 배산체육공원 장미원은 약 5,400주의 장미가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공원 입구 장미터널을 시작으로 ‘골든 셀리브레이션’, ‘피플 브리즈’, ‘화이트 심포니’, ‘퀸 엘리자베스’ 등 다양한 품종의 장미가 산책길을 따라 어우러져 화려한 풍경을 선사한다.

중앙체육공원과 유전생태습지도 장미정원이 초여름 정취를 더하며, 시민들의 일상에 여유와 활기를 선사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도심 속 장미정원이 시민들에게 일상의 즐거움과 휴식을 전하는 공간이 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공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 개정동지사협, 저소득 어르신들에 돌보기안경 지원

군산시 개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이금순, 민간위원장 김근석)는 21일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시력 불편 해소를 위해 ‘뜨거운 세상, 행복한 일상’ 어르신 돌보기안경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노화로 인해 시력이 저하됐음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안경을 마련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의체는 관내 저소득 어르신 100명에게 돌보기안경을 전달하며 보다 편안한 일상 생활을 돕고자 했다.

돌보기안경을 지원받은 한 어르신은 “신문 글씨나 휴대전화 문자가 잘 보이지 않아 불편했는데 이렇게 안경을 지원받게 돼 정말 감사하다”며 “이제는 책도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근석 민간위원장은 “작은 돌보기안경 하나지만 어르신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임근석 기자

익산시, 시민과 기록문화 꽃 피운다... 제2기 도슨트 출범

익산시가 지역의 기록과 역사를 시민의 언어로 생생하게 전할 주인공들을 맞이했다.

시는 21일 익산시민역사기록관에서 제2기 도슨트 전문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기록관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해설사(도슨트) 13명은 이달 11~21일 총 5회에 걸쳐 진행된 ‘도슨트 집중 양성과정’을 수료했다. 양성과정은 △ 기록물의 가치 이해 △ 민간기록물 스토리텔링 기법 △ 도슨트의 역할과 자세 등 전문 해설 활동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영됐다.

제2기 도슨트들은 교육을 통해 두루 익힌 역량을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기록관 상설 전시 해설, 제6회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전시회 해설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익산시민역사기록관과 시민 도슨트를 중심으로 시민이 직접 기록 보존과 해설에 참여하는 시민 주도형 기록문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농가 맞춤형 지원 강화 2(題)

축산재해보험, 최대 300만원 지원

정읍시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축산 농가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농가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축산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이 보험은 소와 돼지, 닭 등 주요 가축은 물론 축사 시설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폭염이나 태풍, 호우 같은 각종 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가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인당 최대 3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지원하는 국비 200만원에 도비 40만원, 시비 60만원을 더해 총 300만원을 보조한다.

농가는 나머지 100만원만 스스로 부담하면 된다.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읍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축산 관련 단체를 통해 안내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 농가에서 재해가 발생하기 전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든든하게 피해에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략작물직불제, 29일 접수 마감

정읍시가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최대 550만원을 지원하는 2026년 하계 전략작물직불제 신청을 오는 29일 마감한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접수하면 된다.

이 제도는 쌀 생산량을 조절해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논에 벼를 심는 대신 두류, 가루쌀, 조식료, 식용옥수수, 깨 등을 기르면 1헥타르(ha)당 200만원에서 최대 55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지원 품목과 단가를 크게 늘렸다.

수급 조절용 벼, 알팔파, 울무, 수수를 새롭게 포함했다. 기존 품목의 지원 금액도 올랐다.

식용 옥수수와 깨는 1헥타르(ha)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하계 조식료 역시 5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단가를 높였다.

시는 접수 일정을 끝내면 6월 안으로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빠짐없이 받도록 신청 독려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식품 산업 ‘현장 행정’ 펼쳐

정현을 시장, 국가식품 클러스터 사업 추진 독려

대한민국 식품 산업의 수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이 미래를 향한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21일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핵심 시설과 주요 공사 현장에 잇달아 방문해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다져온 식품 산업 육성 성과를 점검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및 차세대 동력이 될 푸드테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독려하는 ‘생생 현장 행정’을 펼쳤다.

시는 민선 6기 초기부터 다져온 강력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푸드테크 기반과 성공적으로 결합해 국내외 초일류 식품 기

업들이 찾아오는 역동적인 산업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정 시장은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는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공사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 시장은 미래 식품 시장을 익산이 선점하기 위해서는 적기의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다가오는 우기철을 대비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는 한편, 현재 활발히 가동 중인 소스산업화센터와 농식품원료중계 공급센터의 운영 현황도 함께 챙기며 입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문턱 낮추기’를 주문했다.

이어 정 시장은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탄생하는 공간인 청년식품창업센터를 찾았다. 센터 내 전시된 혁신 제품들을 꼼꼼히 시찰한

정 시장은 현장에서 열리고 있던 ‘청년 창업캠프’ 교육장을 방문했다.

미래의 글로벌 식품 기업을 꿈꾸며 열띤 토론을 벌이던 청년 참가자들을 만난 정 시장은 청년들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가장 강력한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고 전문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현을 시장은 “민선 6기부터 지금까지 시민들과 함께 땀 흘려 키워온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이제 세계 시장과 당당히 경쟁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며 “그동안 다져온 견고한 토대 위에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를 푸드테크라는 날개를 달아 익산의 배낸 먹거리를 완성하고, 전국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 스스로 찾아오는 활력 넘치는 식품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청년 정착 기반 강화할 것”

청년·소상공인 분야 8개 공약 발표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가 지역발전 정책공약 일곱 번째 순서로 청년·소상공인 분야 세부 공약을 발표하며 “청년이 떠나지 않고 정착하는 도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살아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1일 정책 발표를 통해 “현재 정읍의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3.9%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자리와 주거, 생활 기반 부족으로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많다”며 “중동 전장 등 대외 경제 악화로 일자리가 줄고, 창업 형편도 어려워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촘촘한 청년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 동안 맞춤형 청년 정책 확대와 창업·주거 지원 기반을 마련해 왔는데, 민선 9기에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정착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청년·소상공인 분야 공약은 △정읍형 청년·신혼부부 만값주택 공급 △소상공인 빈집포 리모델링 지원 △청년부부 첫걸음 워킹패키지 지원 △청년 새출발 생활안정 지원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 공약인 ‘정읍형 청년·신혼부부 만값주택 공급’과 관련해 이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파격적인 수준의 주거 지원을 제공해 정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정읍시가 소규모 공공형 주거공간을 조성해 임대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이를 통해 지역 청년뿐 아니라 인근 도시 청년층 유입까지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 빈집포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유류 상업공간을 활용해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 창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청년 정책은 단순 지원사업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청년이 돌아와 정착하고 결혼과 출산,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지역경제의 뿌리인 만큼 사업승계 지원과 생활안정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생업 기반을 지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공공디자인 전략 마련

지역 정체성·품격 담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군산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전반의 공공디자인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반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영역 전반을 대상으로 디자인 기준과 실행전략을 마련해 시민 중심의 쾌

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 요구가 다양화·고도화됨에 따라,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도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공공디자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군산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품질을 높이고, 도시경관의 일관성과 완성도를 확보할 방침이다.

본 용역은 2026년 4월 착수해 2027년 4월까지 약 1년간 추진되며, 지난 5월 15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

인 과업 수행에 들어갔다. 용역 동안 도시기반시설 현황 분석, 개선 방향 도출, 시민 설문조사 및 전문가·유관기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실행전략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문춘호 안전건설국장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은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군산시민의 특색을 반영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호원대 부속유치원 ‘가족 가든파티’ 개최

21~22일까지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부속유치원이 21~22일 양일간 유아·가족·교직원 이 함께하는 ‘2026학년도 가족 가든파티’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호원대학교 부속유치원 마당에서 진행되며, 가족들이 직접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포트럭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든파티는 호원대학교 부속유치원의 대표적인 공동체 행사로, 개원 이후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전통 행사다. 유아와 가족, 교직원이 함께 어우러져 아이들의 성장 과정과 배움을 나누는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호원대학교 부속유치원은 지난 2004년 개원 당시부터 부모교육과 유아 중심 교육을 함께 실천하는 교육기관을 지향해 왔다. 특히 군산 경제계 원로인 고(故) 인당 강경준 전 백화 회장의 옛 저택을 리모델링해 유치원 공간으로 활용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기관으

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올해 가든파티에서는 유아 작품 감상, 가족 식사와 대화, 클래식 음악공연, 가족 사랑 나누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학교법인 정은학원 강희중 이사장이 유아들이 월명숲과 유치원 바깥놀이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자연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재원생 전원에게 숲모자를 선물해 의미를 더했다.

유치원 측은 아이들이 자연 속 놀이와 탐구를 통해 몸과 마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바깥놀이와 생태 중심 숲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원대학교 김은정 부속유치원장은 “가든파티는 아이·부모·교사·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져 관계를 만들어가는 호원대 부속유치원만의 전통 행사”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임근석 기자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사용 31일 마감

환수 전 사용 당부

정읍시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시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 기한이 오는 31일 마감됨에 따라, 남은 금액이 시로 환수되기 전 서둘러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 지원금은 지난 1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읍시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 자체 재원을 확보해 추진한 정책이다. 자금이 시중에 돌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는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지급 상황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의 98.5%인 10만 29명이 지원금을 수령했다.

이 가운데 5월 14일 기준으로 전체 지급액의 98%인 294억원이 이미 쓰

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가 이루어진 곳은 동네 상점(마트)을 비롯해 음식점, 주유소, 의료기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집중됐다.

기한을 넘겨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해 정읍시로 모두 환수 조치된다. 아직 남은 지원금은 정읍시사랑상품권 가맹점 어디서든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골목상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아직 잔액을 모두 소비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기한을 꼭 확인해 남은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잔액 조회 방법이나 구체적인 사용처 안내 등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청 재난안전과로 전화해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지역서점 인증제’ 참여 서점 모집

군산시립도서관이 지역서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6월 5일

까지 2시까지 ‘2026년 군산시 지역서점 인증제’ 참여 서점을 모집한다. ‘지역서점 인증제’는 군산시 관내 서점 가운데 일정 기준과 요건을 충족한 서점을 공식 인증해 공공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형 유통망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동네 서점의 자생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인증 받은 서점은 군산시립도서관의 도서 구입 대상 서점으로 선정되며, 타 지역 및 유관기관에서 인증서를 요구하는 도서 입찰에도 공식 인증 서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군산시에 사업자 등록과 실제 매장을 두고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서점이다.

신청 접수 후에는 서류 심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서점은 접수 기간 내 관련 서류를 갖춰 군산시립도서관에 방문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kjchul525@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인증 요건과 신청 서식은 군산시립도서관 누리집의 ‘지역서점 인증제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지역서점 인증제를 통해 지역경제와 독서문화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지역 서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25번째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익산시가 25번째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시는 21일 모현동 율블레스랜드마크47 공동주택 내 ‘새봄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학부모를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함께 축하했다.

국공립 새봄어린이집은 연면적 292㎡ 규모로 보육실 3개와 화장실 2개,

목욕실, 유희실 등을 갖췄으며, 정원 58명으로 운영된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 조성돼 어린이집 접근성을 높이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와 지역 내 돌봄 공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신뢰도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창군, 귀농귀촌 '꿈의 도시' 입증

14년 연속 귀농귀촌 도시부문 브랜드대상 맞춤형 기술정착 지원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이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귀농귀촌 도시부문에서 14년 연속 수상하며, 귀농귀촌 1번지로서 명성을 이어갔다.

고창군은 전지역 생활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농업의 특정한 기술과 맞춤형 정착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오며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꿈의 도시'로 자리매김 해왔다.

특히 지난해는 1035세대 1360명이 고창으로 귀농귀촌해 지역에 큰 활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결실은 지난 2007년 전북 최초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해온 노력의 결과다.

고창군은 예비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과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영농창업이나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 이자의 1%를 3년간(연 최대 300만원) 군비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귀농 초기



고창군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귀농귀촌 도시부문 14년 연속 수상 <사진=고창군>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고 있다.

또한 9년째 운영 중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예비 귀농인들이 최장 9개월간 직접 거주하며 영농 기술 교육과 현장 실습, 정원관리사 교육 등과 같은 맞춤형 과정을 이수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새내기 농업학교와 멘토 컨설팅 등 내실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가동하고 마을 환영회, 지역민과 함께 하는 허브치유교실, 음료베리베이션

과정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이 지역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은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 농업이 공존하는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며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의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살고 싶은 고창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7월부터 고창사랑카드 앱 바뀐다"

조폐공사 '착'으로 변경

고창군이 오는 7월 2일부터 고창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를 기존 나이스정보통신에서 한국조폐공사로 변경함에 따라 고창사랑카드 앱이 기존 '고창사랑페이'에서 조폐공사 '착(Chak)' 앱으로 변경된다.

운영대행사 변경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기존 이용자는 7월 2일부터 신규 앱 '착(Chak)'을 설치한 후 회원 가입을 하면 기존 카드와 보유 잔액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 전환과 이용자·가맹점 정보 이관 작업에 따라 오는

6월 17일부터 7월 2일 오전 8시 59분까지 약 2주간 상품권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중단 기간에는 카드 충전·결제, 나이스정보통신에서 한국조폐공사로 변경함에 따라 고창사랑카드 앱이 기존 '고창사랑페이'에서 조폐공사 '착(Chak)' 앱으로 변경된다.

특히, 기존 '고창사랑페이' 앱은 사용이 종료되며, 7월 2일 오전 9시부터는 신규 앱 '착(Chak)'을 통해서만 상품권 이용이 가능하다.

황민안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상품권의 운영대행사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고창사랑상품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세계 별의 날 기념 고창사랑기부제 홍보부스 운영

부안군은 지난 20일 세계 별의 날을 맞아 군청 1층 로비에서 고창사랑기부제 ESG 지정기부사업인 '야생별 봉봉이를 지켜주세요!'와 연계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부스는 세계 별의 날의 의미와 야생별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고창사랑기부제 및 담례품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부안군 대표 담례품 전시와 함께 고창사랑기부제 안내가 진행됐으며,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관찰용 별통도 운영돼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실제 꿀벌의 움직임과 벌집 내부 활동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해 생태환경의 중요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홍보부스를 통해 꿀벌과 야생별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며 환경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창사랑기부제를 활용한 부안형 ESG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부안군, 변산반도국립공원 감사패 수상

보전·환경 개선 공로 인정

부안군은 지난 20일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로부터 국립공원 보전과 탐방 환경 개선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고 밝혔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감사패를 통해 "부안군은 변산반도국립공원의 자연경관과 환경을 보존하고 국립공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헌신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립공원 내 탐방 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 협력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생태 휴양 공간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군은 그동안 변산반도국립공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탐방객 편의 증진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환경 조성에도 힘써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산반도국립공원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탐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 여성친화도시지정 이후 첫과제관리... 워크숍 개최

김제시는 21일,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운영을 위한 과제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1월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이후 공무원 대상으로 처음 추진되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전문가 특강과 함께 부서별 발굴 사업을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과 담당자 간 의견을 공유하는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여성친화도시 운영'정책이 여성만을 위한 선택적 성평등 사업으로 오해받거나, 명칭에서 오는 직관적인 인식으로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바, 이번 워크숍에서는 여성친화도시가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도시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해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라는 점을 공유했다. 김숙영 교육가족과장은 "각 부서 담당자들이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여성친화적 시각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부서 간 협업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 출정식

선거 유세활동 돌입

6·3 지방선거 전북 고창군수 재선에 도전하는 기호1번 심덕섭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1일 오전 9시 고창군청 앞 회진교차로에서 공식선거운동 시작을 알리는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유세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첫 유세현장에는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박우정·고석원·안재식 삼임선대위원장, 김원봉 공동선대위원장,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고창지역 군의회 후보들(박성만, 이경신, 김승철, 박종영, 고정호, 강상원, 임정호, 김상용, 조규철, 최선례(비례대표), 최은서(비례대표))이 함께했다.

심덕섭 후보는 첫 유세에서 "민선 9기는 새로운 고창 미래 100년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고창을 서해안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고유가 시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고창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첨단산업의 육성과 미래먹거리 성장동력을 조성해 '전력에너지 경제도시', '농어촌기본소득 선도도시', '출산부터 노후까지 완벽히 책임있는 복지도시'를 만들어 부강한 고창을 위한 약속을 꼭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갯벌 어린이 레인저스' 25일부터 참가자 모집

고창군이 어린이 생태교육 프로그램 '2026 고창갯벌 어린이 레인저스' 참가자를 오는 25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레인저스'는 고창갯벌 세계유산 학교의 세부 과정으로 운영되는 어린이 대상 생태환경 활동 프로그램이다.

참가 어린이들은 고창갯벌의 생태를 탐색하고 해양쓰레기 문제를 이해하고 관찰과 기록, 창작활동을 통해 세계유산을 지키기 위한 실천적 경험을 쌓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창갯벌 뉴락(New Rock)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어린이들은 갯벌 현장에서 수집한 해양쓰레기를 관찰하고 이야기를 담아 드로잉과 표본 제작, 전시 작품 창작에 참여하며 환경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완성된 작품은 오는 11월 전시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나눌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6월부터 7월까지 총 4회 교육과 11월 전시 1회로 운영되며, 고창갯벌 및 람사르갯벌센터 일대에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3~4학년 어린이 20명 내외로,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구급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나윤옥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어린이들이 세계유산 고창갯벌을 직접 체험하며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보전의 가치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지역 성장동력 확보 '박차'

지속가능발전 미래전략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김제시가 '지속가능발전 미래전략과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며, 지역 성장동력 확보와 본격 실행 체제 전환을 위한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21일 실시된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진행된 '김제시 지속가능발전 미래전략과제 발굴 연구용역'의 핵심과제에 대한 부서의 추진방향과 실질적인 이행계획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점검결과 65개 사업 중 정상추진, 변경추진, 추진 검토 중인 과제 위주로 '중점관리 사업군'을 별도 선별할 계획이며,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 협의를 통해 대체 사업 또는 차기 과제 재발굴 등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래전략과제들은 향후 2028년도 국



김제시, 21일 '지속가능발전 미래전략과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사진=김제시>

가예산 신규 사업 신청 및 중앙부처 대응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며, 시의 각종 국제사업 발굴 등 대형 신규 사업 발굴과 적극 연계해 시정 전반의 실행력을 뒷받침하게 된다.

이런시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보

고회는 김제시의 미래를 이끌 핵심 과제들의 실행 동력을 확보하는 후속 조치의 첫 단추"라며, "철저한 분석과 고도화 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응급환자 이송지원 체계 확립

민간 구급차 이송비 지원... 의료안전망 구축

부안군은 응급의료 취약지로, 응급의료의 불균형 격차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의료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병원간 이송 지원 최소화를 위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치료를 위해 응급차량의료기관 및 민간이송업체(구급차) 이용 시 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취약계층(소아·청소년(0~18세), 고령자(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부안군에서 전북권, 수도권 등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때 구급차 이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환자 기준은 구급차 출동 및 처

치기록 상 분류 결과가 '소생', '긴급', '응급', '중응급'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방법으로는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가 이송일 기준 1년 이내에 증명서류(신청서,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출동 및 처치기록지, 이송처 치료 영수증)를 갖춰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보건소(☎ 580-3806)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군, 지방보조금 전용 금융기관 확대

신협·새마을금고와 업무협약 체결

고창군이 고창신용협동조합·MG고창새마을금고 2개 금융기관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확대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선택권

을 넓히고, 지역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개설을 가능하게 하기위해 추진됐다.

이전에는 군 금고인 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에서만 개설할 수 있어 불편을 겪었다.

군은 이번 금융기관 확대를 통해 지방보조금통합시스템인 '보통e'사용이 활성화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은 "이번 협약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보편e시스템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금융기관과의 상생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체계를 구축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사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남원·순창 노인시설 안전점검 총력 2(題)

남원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관합동 집중점검

남원시가 재난 발생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강도 민관합동 집중안전점검에 나선다.

남원시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관내 주요 의료복지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건축, 전기, 가스, 소방, 토목 등 사회안전망 전반을 진단하는 정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은 △광덕원 △효성의 집 △남원행복의집 △남원소망의문 △프로도원 등 총 5개소다.

시는 특히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가진 특수성에 주목했다. 입소 어르신 대부분이 고령이나 거동이 불편해 화재나 건축물 붕괴 등 유사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시설물 점검을 넘어 실질적인 '인명 피해 제로화'를 위한 고강도 예방 조치에 초점을 맞췄다.

남원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위험 요인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보수·보강 사항은 신속히 재원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권해정 통합돌봄과장은 "이번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시설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여 보다 안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환경 조성을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순창군, 경로당 380곳 하절기 안전점검

순창군이 여름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절기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군은 오는 6월 26일까지 관내 경로당 38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과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해 화재·전기·가스·시설물 등 분야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경로당 자체 점검과 시니어 노인일자리 안전점검원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며, 읍·면 관계자와 경로당 회장 및 총무 등이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책임보험 가입 여부 △소방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 등을 활용해 신속한 정비와 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중요한 여가공간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시설 관리와 안전대책을 추진해 경로당 이용 환경 개선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단' 출범

소비자 모니터단 16명 활동 타지역농산물혼입여부도 감시



<사진=완주군>

완주군이 지난 20일 용진 로컬푸드 직매장 3층에서 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단, 직매장 운영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 모니터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위촉한 16명의 소비자 모니터단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농산물의 품질과 유통 상태를 점검하고, 시중 가격과의 비교 등을 통해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핀다.

주요 활동은 △유통기한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확인 △농산물 품질 상태 모니터링 △타 지역 농산물 혼입 판매 감시 등이다.

이들은 현장에서 부적합 사항을 발견 할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 사

이를 잇는 소통의 가교 역할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한 모니터 요원은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농산물의 안전성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며 "생산 농가에는 자부심을, 소비자에게는 안심을 주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옥현 농업정책과장은 "모니터단이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영농철 맞춤형 현장지도 강화

바·고추 농가 현장지도반 운영 모내기·초기 생육 관리 지도

순창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바·고추 농가 초기 생육 시기 농가를 직접 찾아 기술지도와 현장 상담을 진행하는 등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 마련에 나선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9일까지 읍·면 상담소장과 작물기술팀, 소득경영팀 등 17명으로 현장지도반을 꾸려 관내 바·고추 재배농가를 찾아 맞춤형 현장지도를 진행한다.

이번 현장지도는 지역별·품종별 적기 모내기 유도와 적정 재식밀도 관리, 초기 활착 상태 점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결주 지역 보식 여부 확인과 고추 정식 이후 활착 상황을 살피고, 가뭄과 지온 등 이상기후 대응 방안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또 적정 시비량 준수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방안과 농가 현장에서 겪는 애

로사항 상담도 병행해 단순 기술 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현장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최근 영농환경은 이상기후와 생산비 부담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초기 생육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 중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군은 이번 현장지도가 농가의 안정적인 작물 생육 관리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장 중심 기술지도를 통해 농가 어려움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현장지도를 통해 파악된 작물 생육 상태와 농가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초기 활착 불량이나 병해충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점검도 이어갈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자살예방회의 개최 지역 긴급 대응 체계 점검

남원시는 자살 위험군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21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자살예방회의를 개최했다.

남원시는 지난 3월 20일 부서장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자살예방관 주재로 지역 자살예방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남원시 홍보전산과와 주민복지과를 비롯해 보건소, 남원경찰서, 남원소방서, 남원의료원,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가 참석하여 자살예방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고위험군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체계를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자살시도자 대응 현황 공유 △자살예방사업 인력 운영 및 현황 점검 △복지·돌봄·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통합연계체계 구축 방안 논의 등이다.

또한 오는 9월까지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운영하며 번개탄 관리, 자살다발자소 관리, 종교계 협업, 자살유족 지원체계 등 월별 중점 안건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군, 만경강 계절형 경관지구 조성 '박차'

봉동 구만리 11ha 유채·매밀 재배 농업·환경·관광 결합 복합사업

완주군이 만경강 일대의 생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농가 소득을 다각화하기 위한 '만경강 주변 경관지구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봉동을 구만리 43번지 일원(80필지, 11ha)을 대상으로 농업과 환경, 관광이 결합된 대표 경관자원을 창출하고자 복합 경관농업 보조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번 사업은 만경강 주변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활용해 봄에는 노란 유채꽃, 가을에는 하얀 매밀꽃 등 계절별 경관 작물을 집단체화하여 재배한다.

군은 이를 통해 농촌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완주군만의 차별화된 친환경 이미지를 높일 방침이다.

앞서 완주군은 지난해 12월 추진계획 수립 및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지난 3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대상지 주민 대면 및 유선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6월까지 밀도 높은 주민 의견 청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7월부터 8월까지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 및 구체적인 사업 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경관 조성

을 넘어, 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농가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체면터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불거리와 연계한 농가 소득 다각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옥현 농업정책과장은 "만경강 주변 경관지구 조성은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만경강을 농업·환경·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랜드마크로 바꾸어 나가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해 만경강 일대를 완주군을 대표하는 생태 축지점을 마련하고,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협의체 가동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 공조 강화 물놀이 위험구역 9곳 집중 관리

남원시는 21일 시청 관계자를 비롯하여 남원경찰서, 남원소방서, 지리산국립공원공단, 남원교육지원청 등 수상안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수상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분야별 역할 분담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각 기관은 여름철 성수기 익사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구조·구

조 체계를 다졌다. 남원시는 안전대책 총괄 및 시설물 보강을 담당하며, 경찰서는 재난취약지 순찰 및 치안 유지, 소방서는 수난구조 구조대응 및 요원 현장 교육을,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내 지자체 안전대책을, 교육청은 학생 대상 물놀이 안전 예방교육을 각각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올해 산내면 내령리 지리산밸리펜션 앞 계곡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총 9개소(계곡 8, 하천 1)의 관리·위험구역을 확정했다. 해당 구역에는 구명조끼, 인명구

조함 등 안전시설물을 6월까지 정비·보강하고, 총 32명의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선발·배치하여 7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인 근태 관리와 예찰 활동을 전개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여름철 자연재난과 수상안전사고는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사전 대비와 촘촘한 현장 점검을 통해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남원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군, 화학사고 '제로화' 총력...집중 안전점검

하이트진로 전주공장 현장 점검 전기·소방·안전 실태 정밀 확인

완주군이 지난 20일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이종훈 완주군수 권한대행은 용진읍에 위치한 하이트진로 전주공장 등 현장을 방문해 시설 내부를 면밀히 둘러보며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온 상승 등 계절적 요인과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관내 제조업체 가운데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나 법령이 정한 정기



<사진=완주군>

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취급 업소를 한 번 발생하면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므로 철저한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완주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훈 군수 권한대행은 "화학사고

종합 등 안전시설물을 6월까지 정비·보강하고, 총 32명의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선발·배치하여 7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인 근태 관리와 예찰 활동을 전개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여름철 자연재난과 수상안전사고는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사전 대비와 촘촘한 현장 점검을 통해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남원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남원시, 한우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

송아지·미접종 개체 집중 관리 30일까지 4,775두 접종

남원시가 소 구제역 발생 예방과 안정적인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수시 예방접종을 추진한다.

이번 수시 접종은 정기 일제접종 미접종 개체와 1·2차 접종 시기가 도래한 송아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접종 대상은 총 4,775두로 전업농가 1,911두, 중규모농가 1,823두 소규모농가 1,041두이며, 접종 기간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전업농가는 읍면동을 통해 접종대상 개체번호를 안내받아 축협 동물병

원에서 백신을 구입한 뒤 자율접종을 실시하게 되며, 위탁 사육농가는 축협에서 접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규모농가는 상반기에 배분받은 백신을 활용하여 자가접종을 진행하며, 또한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를 활용한 백신 공급과 현장 접종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접종 누락 방지를 위해 읍면동과 협조해 농가별 접종 대상 개체를 사전에 안내하고, 접종 완료 여부 및 항체 형성 상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접종 이후 항체양성을 모니터링 감사를 진행해 기준치 미달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순창군, 소방관 대상 농업기계 안전교육

농번기 농업기계 사고 대응 강화 70여명 대상 실습교육 3회 진행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기계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현장 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순창군 소방관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안전 이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관내 소방관 7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7일부터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한다.

교육은 농업기계 안전 전문가 2명이 맡아 농업기계를 접해보지 못한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기계의 구조와 작동 원리, 특성 등을 설명하고 농업

기계 사고 발생 시 필요한 해체 및 구조 기술을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실제 구조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실습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소방관들의 현장 대응 능력과 구조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농번기에는 농업기계 사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지는 만큼, 이번 교육이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농번기가 시작돼 농업기계 사고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이번 교육이 구조대원들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또한 교육 후에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부모 간 육아 정보 공유 및 자조 모임 연계 등을 통해 향후 프로그램 운영 개선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 밀착 건강거점 자리매김

남원시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충동에 위치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 7월 개소 이후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강 프로그램과 맞춤형 건강상담을 운영하며 시민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인바디 측정, 혈압·혈당 확인 등 기초 건강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영양·신체활동 분야 전문 상담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는 올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며 시민 참여형 건강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슬로무조깅, 건강동아리, 스마트폰 활용교실,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세대별 건강 수요를 반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체험과 실습 중심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어 좋다",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며 건강생활 실천 의지가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장수군보건의료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진행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노승무)은 지난 20일 군청 군민회관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관 관리자와 교육 희망자 등 7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이번 교육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총 2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교육 내용은 △심폐소생술(CPR)의 중요성과 이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및 기기 관리 요령 △교육용 모형(에니 인형)을 활용한 1:1 맞춤형 가슴압박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단순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상황을 가정한 반복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을 운영해 참가자들이 응급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천 능력을 높였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 무지개빛 작은도서관, 세대공감 프로그램 운영

임실군 무지개빛 작은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과 부부의 날(5월 21일)을 맞아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카네이션 만들기 및 꽃바구니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전했다.

지난 7일 임실군청소년수련관 내 위치한 무지개빛 작은도서관에는 관촌 원광어린이집과 새싹어린이집 교사 및 아동 33명이 방문해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카네이션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이어 5월 18일에는 성인 남성 13명을 대상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 '사람을 전하는 꽃바구니'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화를 활용한 꽃바구니 만들기 체험을 통해 행복한 가정문화 조성 및 세대 간 화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작된 꽃바구니는 지역 어린이집과 협력해 임실군 노인복지회관에 전달했다. 아이들이 직접 꽃바구니를 전달하며 어르신 공경과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효 문화를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디지털 디톡스 투어' 참가자 모집

진안군은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를 맞아 '치유관광지'로의 브랜딩을 위한 '디지털 디톡스 투어'를 기획하고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투어는 진안군과 뉴미디어 기반 여행 콘텐츠 전문기업 '트렌드픽'이 지역 치유관광 상품 개발 방향을 함께 논의하며 기획한 제휴형 힐링 프로그램이다.

이번 투어는 내달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되며 24시간 동안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반납하고 진안의 청정 자연 속에서 온전히 휴식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총 10명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1인이 동반해야 참여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 오후 3시까지이며, 참가비는 2만 원이다. 참가 신청은 진안군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투어는 매일 쏟아지는 정보와 슛폼에 피로감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특히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격증 시험이나 새로운 진로 변경 등 중요한 도전을 앞두고 복잡한 머릿속을 비워야 하는 사람, 자연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청소년 역사·진로 활동 강화

'2026 농어촌청소년 성장 네트워크 지원사업' 선정 민관이 함께 일군 결실 호평

무주군은 무주청소년수련관이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에서 주관한 '2026 농어촌청소년 성장 네트워크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지원금 1,1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11월 무주군이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 체결한 청소년 육성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이 발판이 됐으며, 특히 무주군 청소년들

이 '무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제안한 '다양한 지역 탐방 활동 확대' 안건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반영됐다. 이는 민관이 함께 일군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무주군은 이번 공모 선정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열쇠로 삼아 지역 내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무주청소년수련관과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성청소년문화의집, 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 등 관내 4개 기관을 연계한 협의체를 구성해 농촌 청소년(13~18세)들의 문화 체험활동 불균형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성옥 무주군청 인구활력과장은 "공모 선정을 계기로 우리 군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함양과 진로 활동을 뒷받침하게 됐다"라며 "무주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펼쳐질 다양한 활동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6월부터 9월까지 '기록에서 찾고 디자인으로 피우다'를 주제로 한 역사사 자료 중심의 역사교육, △독도 브랜드 및 굿즈 제작 진로활동, △사업성과 공유 등의 공동 기획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장수, 지역 일자리 해법 찾는다

임실군, 가족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임실군가족센터와 맞선

임실군로컬JOB센터(이하 임실잡센터)와 임실군가족센터가 손을 잡고 경력보유여성, 다문화가정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가족 맞춤형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임실잡센터는 지난달 24일 임실군가족센터에서 '도농상생형 고용플랫폼 조성 및 가족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고용 네트워크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6년 전북 도농상생형 고용플랫폼 조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보 부족이나 접근성 문제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마

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다음 6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가족 구성원 및 취약계층 맞춤형 구인·구직 매칭 △경력보유자·다문화가정 일자리 정보 공유 △취업역량 강화 직무 교육 및 멘토링 △찾아가는 이동 상담 및 홍보 △안전정책 정착을 위한 사후 관리 △일·생활균형 여건 개선 등이다.

특히 임실잡센터는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구직자의 발돋움에 불을 켜주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 구직자에 게 면접지원비(5만 원)를 지급하고, 면접 현장에 상담사가 직접 동행하는 '동행면접 서비스'를 제공해 심리적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일자리 창출 협의체 회의

장수군로컬JOB센터, 유관기관기업체 협력강화

장수군로컬JOB센터(센터장 주성덕)는 지난 20일 지역 내 고용 활성화와 기업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일자리 창출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장수군청과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을 비롯해 관내 유관기관 및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고용 현황을 공유하고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장기근속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방향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사업 운영 방안 △구인난 및 인력 수급 문제 해소 위한 개선 대책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또한 각종 지원사업과 고용 정책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현장의 의견을 상시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의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일자리 활성화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함께 체결됐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지역 기업과 구직자 간 연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이정우 권한대행,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 현장점검

올해 7월 준공 목표

이정우 장수군수 권한대행은 21일 계북면 어전리 733-3 일원에서 추진 중인 '참샘골 행복주택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우기에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참샘골 행복주택 조성사업'은 계북면의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유입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2024년부터 총사업비 약 59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2,396㎡, 연면적 1,356㎡ 규모의 지상 4층, 총 18세대 연립주택으로 조성되고 있다.

입주대상은 농촌유학생 학생·학부모를 비롯해 계북면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으로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장수군은 이번 행복주택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정주 인구 확



이정우 장수군수 권한대행은 21일 '참샘골 행복주택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장수군>

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공사는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군은 진입도로 확장과 회전교차로 설치, 보행 안전시설 강화 등을 설계에 반영해 주민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 여건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정우 군수 권한대행은 "참샘골 행복주택은 계북면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며 "특히 여름철 우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치매 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 나서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로 물질적·정서적 서비스 제공

임실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신체적·심리적·사회적·환경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하며,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 치매환자들

'긴급', '중점', '일반' 사례로 분류해 총 110명 대상으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 중이다.

치매 진단 후 사례관리 심의를 거쳐 가정방문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투약관리를 진행한다. 이후 외부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지활동 교구를 제공해 스스로 일상에서 인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방문 과정에서는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를 면밀히 파악한 뒤, 기존 치매안심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돌봄서비스, 장기요양등급 신청, 노인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을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의료원 김대근 원장은 "심층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까지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N장미축제 '천하제빵' 팝업스토어

최연소 제빵장인 김진서와 팝업스토어 운영

전국적으로 인기를 끈 화제의 방송 프로그램인 '천하제빵'에서 화제가 된 최연소 제빵장인 김진서가 임실N장미축제에서 임실N치즈로

만든 빵을 관광객들에게 선사한다. 군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 잠미원에서 올해 초 MBN과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며 주목받은 프로그램 '천하제빵'과 연계한 특별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MBN천하제빵 방송 콘텐츠와 임실군의 대표 특산물인 임실N치즈를 접목해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미식 체험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기간에 군과 김진서 파티시에, 한국영제프요리단이 함께 운영하는 팝업스토어는 '천하제빵'을 통해 주목받은 임실N치즈 부레타 브레드를 관광객들과 나누는 특별한 베이커리 나눔행사도 진행된다.

숙련된 제과기술과 임실N치즈의 깊고 풍부한 풍미가 어우러진 다양한 제품은 축제기간 3일 동안 한정 운영될 예정으로,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미식 경험을 제공할 전망이다.

이번 행사는 장미꽃이 만개한 이국적인 축제공간 속에서 수준 높은 베이커리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어 맛과 향, 감성이 어우러진 임실만의 특별한 축제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보건료정책수립 및 사업 발굴 기초자료 활용 취지

무주군이 오는 7월 31일까지 지역 내 만 19세 이상 성인 869명을 대상으로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승인 통계 조사인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조사 통계를 기반으로 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근거 중심의 보건료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전국 17개 시도, 260개 보건소가 공동 수행한다.

조사는 표본지점 선정 후 대상 가구를 확정, 사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한 뒤 조사원이 방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내용은 △흡연·음주·식생활, △안전의식, △신체활동 등 18개 영역 168개 문항이다.

조사 결과는 2027년 2월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을 통해 공표된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농지 전수조사 대비 농업인 순회 교육

장수군은 농지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관내 7개 읍·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농업인 순회 교육'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지의 불법 소유·임대·전용을 방지하고 실제 경작 중심의 농지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농지법령의 주요 내용을 농업인들에게 정확히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지난 19일 장계면사무소를 시작으로 20일에는 산서면사무소에서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했으며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설명을 통해 농업인들의 이해를 도왔다.

주요 교육 내용은 △농지 전수조사 의 목적 및 추진 방향 △농지법상 농지 소유·이용 관련 핵심 규정 △전수조사 사전정비기간 운영 안내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등 농업인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장수군은 다음달 10일까지 장수읍을 포함한 나머지 5개 읍·면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찾아가는 순회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정부세종청사서 현안 챙기기 총력

진안군이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찾아 건의활동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경영 군수 권한대행 등 관계 공무원들은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과 부처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지방재정투자심사, 양명 자연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을 건의했다.

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군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기반 확충을

위해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 또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양명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국가예산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농촌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 활성화와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진안군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속도를 내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완주 동상면 이순호씨, 어르신 위해 쌀 100포 기탁

완주군 동상면 밭티마을 주민 이순호(57세) 씨가 관내 고령 어르신들의 든든한 식생활을 돕고자 쌀 10kg 100포를 21일 기탁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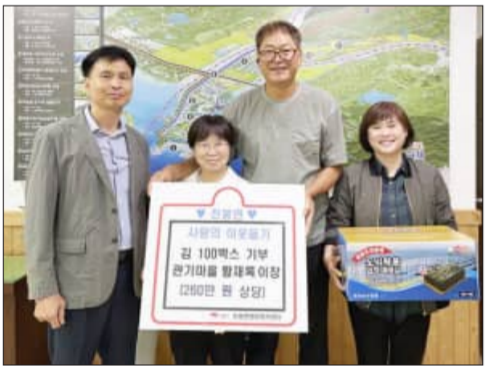
동상면 지역보장협의체는 기탁받은 쌀을 관내 만 80세 이상 어르신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나눔은 소외된 이웃들의 안부를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 씨의 따뜻한 배려에서 비롯됐다.

이 씨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매년 현금과 백미 등을 기부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는 등 꾸준한 나눔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이 씨는 "마을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고자 쌀을 기부하게 됐다"며 "어르신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고 늘 건강하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성택 동상면장은 "매년 지역사회를 위해 온정을 베풀어 주시는 이순호 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김제 진봉면 황재록 이장, 취약계층에 김 100박스 기부

김제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관기마을의 황재록 이장이 지난 20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김 100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황재록 이장이 평소 가졌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웃사랑의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련한 나눔이다. 기부된 김은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황 이장은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정을 나누며 따뜻한 진봉면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유석 진봉면장은 "선뜻 나눔을 실천해 주신 황재록 이장에 감사드린다"며 "기부해 주신 물품은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정읍 상명새마을금고, 매일 계란 정기 기탁

시기동 공유냉장고에 후원 이웃 사랑 실천 나눔 활동

정읍 상명새마을금고가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돕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시기동 공유냉장고에 매일 계란 60판(10구)을 정기적으로 후원한다.

이번 후원은 이웃 사랑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금고 측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시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체계 운영하는 공유냉장고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안연이 이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이웃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기동 공유냉장고 정기 기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영심 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향해 따뜻한 관심과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상명새마을금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매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신선한 계란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매우 큰 위로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정읍 상명새마을금고가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돕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시기동 공유냉장고에 매일 계란 60판(10구)을 정기적으로 후원한다 <사진=정읍시>



손기홍 유유누에마를 대표, 부안군에 100만원 기탁

전북 부안군은 세계 벌의 날을 맞아 유유누에마를 영농조합법인 손기홍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부안군이 추진 중인 고향사랑기부금 ESG 사업인 '야생벌 분봉이를 지켜주세요!' 사업 취지에 공감해 이번 기부에 동참했으며, 비플래닛(Bee Planet) 정원 조성과 생태환경 복원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변산면 누에타운 인근에 조성 중인 비플래닛 정원은 황무지였던 공간에 꽃양귀비 등을 식재해 벌과 꽃이 공존하는 생태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최근 꽃양귀비가 만개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손기홍 대표는 "세계 벌의 날을 맞아 야생벌 보호와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함께 알리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환경이 함께 살아가는 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신우종합철강 주성ENG, 군산시에 백미 기탁

백미 200만원 상당 전달

신우종합철강 주성ENG(회장 김미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군산시 관내 저소득 세대와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을 위해 백미 50포(2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백미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김미규 회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신우종합철강 주성ENG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변함없이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신우종합철강 주성ENG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기탁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희망과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임근석 기자



신우종합철강 주성ENG이 백미 50포(200만원 상당)를 군산시에 기탁했다.



남원 청소년들, 대전 청소년들에 광한루원 가이드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은 21일 남원 광한루원에서 대전광역시 학교박정소년지원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남원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청소년역사문화홍보단 광한루원 해설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관광 지식 전달을 넘어,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남원의 문화적 정체성을 탐구하고 자신들의 언어로 타 지역 또래 친구들과 소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소년역사문화홍보단'은 광한루원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건축미를 청소년의 시각에서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전달하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한 청소년 단원은 "대전에서 온 친구들에게 남원 지역의 보물인 광한루원을 직접 소개하며 남원 시민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무주군자원봉사센터, 어르신 테이핑 봉사 활동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가 고령화로 인해 만성 근골격계 통증을 겪는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본격적이 행동에 나섰다.

무주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일 만다누리장 이용자와 교통노인정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통증 짹! 근육 튼튼! 찾아가는 테이핑 봉사'의 첫 번째 현장 활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했으며 매달 2회씩 관내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활동을

예고했다. 이번 사업은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고 '사랑의 열매' 단원들이 전문 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습득한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테이핑 처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에서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간단한 스트레칭과 사후 관리법 코칭을 병행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익산 금마면 '모퉁이부엌' 착한가게 동참

익산시 금마면에서 지역 소상공인이 착한가게에 동참하며 이웃을 위한 나눔 확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금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1일 '모퉁이부엌(대표 최선안)'을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금마면에 있는 모퉁이부엌은 돈가스 and 오므라이스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다. 합리적인 가격과 맛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맛집이다. 이번 착한가게 가입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정기기부에 동참하게 됐다.

착한가게는 매일 3만 원 이상 정기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사회 중심 기부 캠페인이다. 기부금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금마면 지역복지특화사업에 사용된다.

최선안 대표는 "착한가게 가입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자연생태계 보전, 우리의 작은실천에서 시작 됩니다

"천연기념물 수달이 함께 사는 도심 속 생명의 터전, 전주천입니다."

〈一事一言〉



‘황금 수갑’ 찬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넘어 생존을 택했다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전쟁의 최전방에 선 삼성전자가 마침내 파국 직전의 노사 갈등을 잠재우고 극적인 대타협을 이뤄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사상 초유의 총파업 위기로 붕괴하고 성과급 분배 비율을 둘러싼 사내 내홍으로 전 세계 재계의 우려를 자아냈던 삼성전자 노사다. 그러나 이들은 ‘영업이익의 10.5% 성과급 고정 재원 확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통해 갈등의 끈을 메우고 손을 맞잡았다. 이번 합의는 단순히 “삼성 직원이 역대급 돈방석에 앉았다”는 차원의 가십거리가 아니다. 위기 국면에서 거대 글로벌 기업이 어떻게 자본의 영리한 힘으로 내부 분열을 통합하고 결속을 다지는지 보여준, 이른바 ‘삼성식 자본주의 해법’의 정수다. 본지는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인 삼성전자가 공멸의 길 아닌 상생과 생존의 길을 택한 이번 결단을 중심으로 환영한다.

이번에 도출된 ‘2026년 성과급 노사 합동 합의서’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사측의 치밀한 전략과 노측의 현실적 수용이 빛어낸 고도의 정밀함이 돋보인다. 사측은 흑자 부서와 적자 부서 간의 극심했던 이견을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이라는 정면 돌파 카드로 해결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무려 3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해, 흑자를 낸 메모리 사업부에는 최대 6억 원이라는 확실한 성과 보상을 안겨주며 성과주의 원칙을 지켰다. 동시에 소외될 뻔했던 적자 사업부와 5만 명의 완제품(DX) 부문 동료들, 심지어 협력업체까지 아우르는 상생안을 포함해 내부 위화감을 지워냈다. 파국 직전의 노조를 달래는 동시에 내부 결속이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를

자본의 힘으로 멋지게 해결한 셈이다.

특히 이번 성과급을 현금이 아닌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고, 그중 3분의 2에 대해 1~2년간 매각을 제한하는 ‘보호 예수(락업)’ 장치를 둔 것은 사측이 던진 신의 한 수다. 수십 조 원의 현금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막았을 뿐 아니라, 임직원 개인을 회사의 이익과 주가에 연동되는 ‘주주’로 묶어버렸다. 주가가 올라야 내 성과급의 가치가 올라가니, 직원들은 회사의 성장을 위해 더 열심히 땀 흘릴 수밖에 없다. 결국 이 파격적인 합의는 단순한 일회성 보상이 아니라, 향후 10년간 매년 100조에서 200조 원의 천문학적 이익을 내어만 유지되는 거대한 ‘황금 수갑’을 노사 스스로가 나누어 찬 꼴이다.

일각에서는 갈등을 막대한 자본으로 해결했다는 비판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삼성전자가 처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현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터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장벽과 대만 TSMC, 엔비디아 등 글로벌 공룡들과의 사활을 건 패권 경쟁 속에서 내부의 총질과 파업은 곧 침몰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노사가 소모적인 감정싸움을 멈추고 ‘기업의 생존’이라는 절대 명제 아래 합의를 이뤄낸 것은 지극히 실용주의적이며 현명한 결단이다. 내부 전열을 정비한 삼성이 다시 한번 AI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확고히 질주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타결은 국가 경제 전체로서도 거대한 복이 아닐 수 없다.

삼성의 이번 해법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우리 지역의 기업들과 노동계에

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지방의 수많은 중소기업과 향토 기업들은 노사 갈등이 터질 때마다 이분법적 대립과 파업, 직장폐쇄라는 극단적인 과거의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로를 무너뜨려야 내가 사는 구조는 결국 지역 경제의 공동 공동화를 초래할 뿐이다. 대마불사의 글로벌 기업조차 생존을 위해 노사가 유연하게 타협하고 서로의 실리를 챙겨주는 실용주의적 상생 모델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파이를 키워 공정하게 나누고, 그 나눈 결실로 다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삼성의 선순환 구조는 지역 노동 행정이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할 대목이다.

노동조합의 정체성은 무조건적인 투쟁과 쟁취에만 있지 않다. 회사가 존재해야 노동자도 존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행동으로 증명했다. 무리한 요구와 감정적 설화로 흔들리던 노조 지도부도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파업 명분을 내려놓았고, 사측은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비전으로 화답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민생 안정을 외치는 전북의 정치 지도자들과 기업인들 역시 삼성이 보여준 상생의 리더십을 깊이 눈여겨보아야 한다.

황금 수갑을 차고 거대한 생존의 항해를 다시 시작한 삼성전자의 앞날을 응원한다. 노사가 위기 앞에서 팽팽 물쳐 이뤄낸 이번 대타협이 삼성의 제도약을 넘어,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호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초일류 기업의 DNA는 이번에도 살아있음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사설

기후위기 시대, 전북 농업은 버틸 준비가 돼 있나

해마다 여름이 오면 전북 농촌은 전쟁을 치른다. 어느 해에는 기록적 폭우가 논밭을 잠기게 하고, 어느 해에는 폭염이 벼와 과수의 생육을 무너뜨린다. 병해충은 갈수록 빨라지고 강해진다. 이제 농업재해는 일시적 자연현상이 아니라 기후위기가 만든 구조적 재난이 됐다.

전북도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수천억 원 규모의 예방사업과 24시간 대응체계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불안하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논지는 해마다 같은 곳에서 되풀이되고, 배수 개선 사업은 근본 처방보다 응급 복구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집중호우가 한 번만 쏟아져도 논농산지와 저지대 농경지는 속수무책으로 물에 잠긴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폭염 문제 역시 심각하다. 시설하우스 농가는

냉방시설을 갖추고도 전기료 부담 때문에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폭염 대응 정책이 실제 농가의 경영 현실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지원사업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농민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

농작물재해보험도 마찬가지다. 가입률 확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 보상이 충분한지, 지급 기준은 현실적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보험이 위기의 안전망이 되지 못하면 농민은 결국 빚으로 버틸 수밖에 없다.

전북은 농도(農道)다. 농업이 흔들리면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린다. 이제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대책 발표가 아니라 반복 피해 지역에 대한 구조적 개선과 장기 대응 전략이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전북 농업은 지금, 버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독자투고

적법한 집회를 위한 집회참가자의 책임과 당부



집회는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될 때 비로소 보호받고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최근 일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는 집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집회 현장은 다수 인원이 밀집된 공공의 공간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현장에 배치된 경찰력에 의해 실시간으로 채증되고 있으며, 이는 사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게 된다. 단순한 총동이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루어진 행동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로 남게 되면 결국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특히 공공기물 파손, 경찰관 폭행, 교통 방해, 미신고 행진 등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집회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정당한 요구마저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집회참가자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집회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주체 측과 질서유지위원의 안내에 협조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이다. 또한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는 특정 집회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집회는 갈등을 표출하는 수단이지만 사회를 변화시키는 소용의 장이 되어야 한다. 위법이 아닌 합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목소리는 더욱 설득력을 갖고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집회참가자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적법한 집회 문화 정착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익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황호인

오늘의시

봄날은 간다 / 이 외수

부끄러워라	아직 고통받는 이들의	아불사
내가 쓰는 글들은	진통제가 되지 못하네	또 한 해
아직 썩어 가는 세상의		어느 새 유채꽃
방부제가 되지 못하고	돌아보면	한 바지게 짊어지고
	오십 평생	저기 언덕 너머로
내가 흘린 눈물은	파지만 가득하고	사라지는 봄날이여

시인 약력 : 1946년 경남 함양 출생. 춘천교대에입학했다 군 제대 후 중퇴했다. 1975년 중편 '혼장'이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정식 등단했다. '겨울나기', 장편 '들개', '갈', '산록', '벽오금학도' 등을 비롯 에세이 '내 잠 속에 비 내리는데', '말더듬이의 겨울수첩' 등을 남겼다. 소설 '혼장'과 '꿈꾸는 식물', 시집으로 '풀꽃 술잔 나비' '그리움도 화석이 된다', 에세이 '내 잠 속에 비 내리는데' '날다 타조' '하악하악' 등의 작품을 남겼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등록번호 전북가-00022(발간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완주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8-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BT 전북타임스와 함께 하세요!

광고문의 환영합니다

전화 063-282-9601

구독신청:282-9603 기사제보 :282-9600 광고문의: 282-9601
E-mail - jbn8800@hanmail.net

전북의 오늘을 기록합니다

전북타임스
정확한 뉴스, 바울 소식

김제시, 위기가구 보호 위한 복지행정 강화

김제시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복지행정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267만명이고 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5.2%이며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률을 살펴보면 전북이 7.8%, 부산이 7.4%, 광주 7.1% 순이며 세종이 가장 낮은 2.4%이다. 전국에서 수급률이 가장 높은 전북 내에서 살펴보면 김제 10.3%, 남원 9.0%, 정읍 8.8% 순이며 무주 6.0%로 가장 낮은 상황으로 김제시는 전북 자체도 전국 최고 수준인데 그 안에서도 최상위 고비율 지역으로 확인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10.3%. 숫자로만 보면 높은 비율이지만 그 안에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의 삶이 담겨 있다. 전북에서 가장 높은 수급률을 보이는 김제시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고령화와 소득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편집자주)

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추진 맞춤형 권리구제·복지 대상 확대

높은 수급률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권리

김제시는 전라북도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을 보이는 지역으로 복지 수요가 집중된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시는 단순한 급여 지원을 넘어 복지 대상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권리 중심 복지행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김제시는 '복지대상자의 권리구제'를 핵심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통합조사 및 확인조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수급권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재산 반영 오류나 자료 지연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대상자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부당한 수급 탈락이나 급여 감소를 최소화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높은 수급률로써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확인조사를 통한 가구의 적절한 보장에 힘써

확인조사는 매월 그리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에 대한 소득재산수신 자료를 각 개별 가정의 현재 상황에 맞는지 판단하여 가구의 적정 수급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로서 시 통합조사팀은 확인조사 시 각 개별가정의 소득 및 재산의 변동자료에 대한 대상자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사제 또는 반영하여 가구의 현 상황에 맞는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제시는 확인조사 시 수급자 본인 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내역에 대한 확인이 같이 이뤄지고 수신된 자료와 실질적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 비교, 조사하므로 각 개별가정에서는 담당자의 연락 시 가구의 현 상황과 급여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 등에 협조하여 주길 당부하면서 실질적이고 지원 가능한 급여에 대해 연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지방생활보장심의회, 맞춤형 권리구제 집중

김제시는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권 보호를 위해 지방생활보장위원

회 심의를 적극 활용하여 복지대상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기구로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종합적이고 탄력적인 심의를 수행한다.

특히 법적 기준만으로는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개별 가구의 생활실태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위원회는 실제 생활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 예외적 지원 여부를 심의·의결함으로써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기가구, 일시적 소득 변동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 등 다양한 취약계층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례로, 김제시에 거주하는 A씨 가구는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로, 형식상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될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부양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부양능력이 없고 자녀의 양육을 하지 못한채로 장기간 관계 단절 상태에 있다는 점과 해당 가구의 실제 생활이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 보호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A씨 가구는 생계·의료 급여를 지원받게 됐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사례로는 B씨는 과거 지인에 게 차량을 매각했는데 이 차량이 명의변경되지 않고 소위 대표차로 사용되어 각종 과태료 등으로 압류가 되어있고 차량에 차량의 멸실사실인정서를 제출토록 안내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이라는 점을 반영해 수급자격을 결정하도록 심의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의 가구에 대해 보호했다.

이처럼 김제시는 획일적인 기준 적용에서 벗어나 개별 가구의 생활실태를 반영한 심의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고 있다.

올해 달라지는 점...복지 대상 확대



기대 올해 지침의 주된 개선된 사항으로는 "청년대상 근로·사업공제의 확대", "자동차의 일반재산 적용 기준 확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 완화"가 있다.

첫째, 근로·사업공제의 확대는 청년층의 근로유인 강화 및 안정적 탈수급을 위해 연령, 공제수준을 확대했는데 종전 공제대상 연령기준이 다양했던 것을 청년기본법상 청년연령(19세이상 34세이하)에 맞춰 34세이하 대상자들에 대해 근로·사업소득을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둘째, 자동차의 일반재산 적용 부분에서, 다자녀 확대기준 적용으로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차량 중 배기량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량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가구를 18세 미만인 3인 이상의 자녀에서 2인 이상의 자녀로 확대했고 소형화물자동차로서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도 일반재산으로 환산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셋째,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완화는

달리 표현하면 부양비 폐지인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시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부과된 부양비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던 대상자의 경우 이 부양비를 없애 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부양의무자 가구 중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단된 가구를 제외된 부양능력 미약과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단된 부양의무자를 가진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가구를 동일하게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시민 중 보다 많은 서비스 대상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김제시는 읍면동 담당자의 상담 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신청자를 발굴하고 있는 중이며 더 많은 대상자의 복지 서비스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제도 완화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빠르게 결정하여 시민의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으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시민의 복지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